

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24. 06. 14.(금) 배포	사진	1	자료	1	매수	1
담당부서	용인소방서 화재예방과 (생활안전팀)	과장	이기봉 (031-8021-0300)				
		팀장	송해연 (031-8021-0330)				
		담당자	정희태 (031-8021-0335)				

용인소방서, 테니스장서 쓰러진 50대 살린 ‘비번 소방관’에 유공자 표창 수여



△ 사진 설명_(용인소방서 제공)

“무엇보다 시민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”

쉬는 날에 테니스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한 소방공무원의

첫 마디는 온통 쓰러진 시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었다. 미담의 주인공은 이천소방서 마장119안전센터 소속 한창현(49) 소방위다.

용인소방서(서장 안기승)는 비번 날에 갑자기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한 한창현 소방위에게 용인소방서장상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.

한 소방위는 지난 5월 26일 테니스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50대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조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.

이날은 비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소방위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살리는 행동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했다. 임용 후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하며 배웠던 것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.

안기승 서장은 “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시민이 생긴다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의 사명”이라며 “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험에 처한 시민을 위해 노력해주는 직원들께 감사드린다”라고 전했다.